高麗朝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특히 佛經의 集散을 中心으로——

裵 賢 淑*

緖 言
1. 寺刹文庫의 成立과 史的 背景
2. 寺刹文庫의 性格
3. 高麗朝 實錄의 疏開相
結 言

緖 言

三國時代부터 佛敎가 성행되어 각지에 많은 寺刹이 건립되었으며 高麗時代에는 이미 외래의 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전국에 수천의 사찰이 있었으며 이중에는 國庫로 운영되는 國刹도 있었다. 이들 사찰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大藏經을 雕造한 바 있으므로 이를 收藏했었을 것이다. 大藏經은 1帙이 천여책[1]에 달하는 방대한 서책이므로 당시에 大藏經 1帙만 있었다면 文庫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서양에서는 중세의 암흑시대였으므로 대부분의 수도원에서는 羊皮紙 寫本 400~500册을 수장하는 정도였고, 14세기에 이르러서야 1,000책이 넘었었다. 따라서 高麗 寺刹文庫는 서양중세에 비하면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책을 수장하고 있었으며 刊本뿐만 아니라 필사된 大藏經, 그외 사찰에서 간행된 佛經, 寫經院 金字院 銀字院에서 金·銀泥로 필사한 寫經, 墨書의 寫經 등을 수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高麗朝에서 開板된 大藏經의 연구는 비교적 많이 발표되었으나, 그 大藏經을 수장했던 사찰에 대하여 다룬 문헌은 많지 않다. 이에 高麗史, 高麗人의 文集, 金石文, 高僧傳, 寺刹에 관한 記錄을 중심으로 高麗時代에 大藏經의 普及 및 實錄의 疏開相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寺刹文庫의 成立과 史的背景

佛經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그 포교와 동일시기로 간주된다. 즉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때는 高句麗 小獸林王 2년(372) 秦王 符堅이 사신과 順道를 파견하여 佛經과 經文을 보낸 때이다. 이어 眞興王 26년(565) 陳使인 劉思와 明觀이 佛經論 1700여권

* 啓明實業專門大學 圖書館學科 助敎授

을 載送하였으며[2] 善德女王 12년(643) 慈藏法師가 三藏 400 餘函을 가지고 와서 通度寺에 安置한 바 있다.[3] 또한 新羅末 普耀禪師가 吳越에 가서 大藏經을 가지고 와서 海龍寺를 열어 開山祖가 되었다.[4]

高麗에서도 新羅僧 洪慶(墨和尙)이 入唐하였다가 太祖 11년(928) 8월 閩府에서 大藏經 1部를 가져오자 王이 친히 맞아 帝釋院에 안치한 바 있다.[5] 睿宗時 慧照國師는 遼本大藏經 3部를 가지고 왔는데, 그 1部는 定惠寺에 안치되었고 1部는 海印寺에, 1部는 許參政宅에 수장되었다.[6] 成宗 7년(988) 王은 如可스님을 宋에 보내어 大藏經을 청하자 宋帝는 이를 보내주었으며,[7] 同10년(991) 4월 韓彦恭이 宋에서 돌아와 宋帝가 賜한 481函 2,500卷의 大藏經을 獻上하여 內殿에 영입시킨 바 있다.[8] 顯宗 10년(1019) 王은 差使로 하여금 紙墨價를 가지고 宋에 들어가서 大藏經을 구해오도록 하였고 이에 金字藏經을 가져왔으며, 宋의 기록에서도 동년 11월 高麗의 進奉使인 崔元信이 佛經一藏을 구하였으므로 宋帝가 經을 賜했다는 기록이 있다.[9] 同13년(1022) 5월에는 韓祚가 宋帝로 부터 聖惠方, 陰陽二宅書, 乾興曆, 釋典一藏을 받아온 바도 있었다.[10] 文宗 17년(1063) 3월에는 契丹에서 大藏經을 보내왔으며[11] 同 26년(1072) 12월에도 佛經一藏을 보내온 바 있다.[12] 同 37년(1083)에는 宋에서도 大藏經을 보내왔으며[13] 宣宗 4년(1087) 3월 宋의 商人인 徐戩 등 20인이 와서 新註 華嚴經板을 바친 바도 있다.[14] 肅宗 4년(1099) 遼에서 橫宣使 蕭朗을 파견해 藏經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諸家의 疏鈔 6900餘卷을 보내오기도 했다.[15] 睿宗 2년(1107) 正月 高存壽를 보내 遼帝의 生辰을 경하하자 遼帝는 大藏經을 보내기도 하였다.[16] 그 후 忠烈王 23년(1297) 6월 元에서 火魯忽孫을 보내 齊國大長公主의 喪에 弔意를 표하고 아울러 太后가 賜한 賻楮幣와 藏經을 轉해 追福하였고[17] 同 31년(1305) 4월 元은 또 突烈을 보내 藏經을 보냈으며[18] 忠穆王 4년(1348) 11월에 吳王이 完者帖木兒를 보내 佛經을 獻上하기도 하였다.[19] 新羅에서부터 麗末까지 수차에 걸쳐 많은 藏經 및 佛經이 전래되었으므로 이 藏經을 보관했던 사찰이 있었을 것이다.

高麗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藏經 외에 국내에서 간행된 佛經도 있었다. 高麗 佛經으로는 大藏經이 대표적이다. 初藏은 顯宗 3년(1012)경부터 宣宗 4년(1087)까지 570帙, 5924卷을 간행한 것이며 高宗 19년(1232) 蒙古軍에 의해 初藏板木이 소실되자 국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高宗 23년(1236)부터 同 38년(1251) 全藏을 완성하니 6805卷의 再藏인 것이다. 또한 大覺國師가 宣宗 8년(1091) 新編諸宗敎藏總錄을 편찬하고 新羅·高麗·宋·遼·日本의 續藏을 간행하기를 발원하고 入寂한 肅宗 6년(1101)까지 開板한 4000餘卷의 續藏經도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忠烈王 15년(1289) 윤 10월 金字院에서 金泥大藏經을 만들었다.[20] 또한 宋·契丹에서 轉輸된 藏經을 가지고 板刻도 하고 鑄字로 간행도 하고 銀字院, 金字院, 寫經院에서 筆寫도 하였으니 많은 佛經이 있어 이의 보존을 위한 藏經閣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사찰에서 서적을 보관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잦은 전쟁으로 당대의 實錄을 사찰로 疏開

했었다는 점이다. 高麗朝에서는 顯宗代부터 實錄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역대로 實錄을 찬수하였으니 忠烈王 33년(1307)에는 實錄이 185册에 이르렀다. 이 實錄을 宮內 史館이나 佛堂庫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島嶼에 收藏시키기도 하였고 때로는 佛寺로 疏開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高麗時代에 寺刹에서 收藏했던 圖書는 新羅 이래로 중국을 통해 전래된 寫經과 간행된 大藏經, 國內寫經, 刊本佛經 외에 實錄이 있었음을 알겠다.

2. 寺刹文庫의 性格

高麗初부터 중국에서 전래된 大藏經과 국내에서 간행한 佛經을 수장했던 藏書處는 宮內의 殿閣과 寺刹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먼저 宮內의 殿閣에서 수장했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宮 內 收 藏 處

收藏處	收藏年	位置	收藏本	卷數
內殿[21]	成宗 10 (991) 4.	本闕	宋朝大藏經	2500
乾德殿[22]	肅宗 元(1096)10.	〃	華嚴經	
康安殿[23]	忠烈 21(1295) 3.	〃	藏經	
延慶宮[24]	忠宣 4(1312) 1.	延慶宮	藏經	
延慶宮[25]	忠肅 元(1314) 1.	〃	般若經	

宮內에 佛經을 수장시켰던 곳은 本闕의 內殿·乾德殿·康安殿과 延慶宮으로 나타났다. 內殿에는 成宗 10년 韓彦恭이 宋에서 돌아와 481函 2,500卷의 大藏經을 헌납하자 王은 內殿에 迎入·開讀시켰던 것이다.[21] 乾德殿에는 肅宗 元年에 도량을 설하고 仁睿太后가 願成한 華嚴經을 轉한 바 있으며[22] 康安殿에는 忠烈王 21년 王이 친히 藏經을 轉하였다.[23] 이 康安殿은 처음에는 重光殿이라고 불렸으며 肅宗時에는 도서를 수장하였으나 仁宗 4년(1126) 李資謙의 亂으로 소실되고 新闕이 영건되었을 때 康安殿으로 개명됐던 것이다. 延慶宮의 경우에는 忠宣王 4년 王은 藏經을 轉하고 연말까지 승려들이 모여 집회를 하도록 명한 적이 있었으며[24] 忠肅王 元年에도 般若經을 轉하였다.[25] 이 延慶宮은 顯宗이 거란의 침입으로 公州에 피난갔다가 환도와 동시에 南遷中에 行幸했던 金殷傅의 딸(後의 元成王后)를 위해 창건했던 궁궐이었다. 이렇듯 궁내의 殿閣에도 佛經을 收藏시킨 바 있었지만 궁은 사찰이 아니었으므로 佛經의 본격적인 收藏處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로서 궁내에서도 불경을 수장했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佛經의 收藏處인 寺刹에서는 寺刹 경내의 殿閣에 안치하기도 하고 독립건물도 건립하기도 하였으니 大藏殿, 大藏堂, 海藏殿, 海藏堂, 海藏寶殿, 藏經閣, 藏經殿, 大藏經殿 등 다양하게 불려졌다. 이는 大藏經을 藏經, 大藏, 三藏, 衆藏, 海藏[26]으로도 불렀기 때문이었다. 이에 寺刹에서의 大藏經 및 佛經의 수장을 통해 그 보급과 大藏殿의 건립상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2〉寺刹의 收藏處

收藏處	所在地	創建年	安置年月	安置者	收藏本	大藏堂			備考
						間數	層數	創建年	
開國寺(27)	京畿道 開城	麗太祖4(921)	文宗 37(1083)	太子(順宗)	宋藏	大藏	堂	睿宗 16(1121)	
			宣宗4(1087)2.	宣宗	[初]藏				
開心寺(28)	咸鏡道 咸興				大藏經	大藏	殿		
敬天寺(29)	京畿道 開豊		忠定2(1350)이후	大官具氏	[再]藏				禑 4(1378)까지
廣明寺(30)	京畿道 開城	麗初	忠烈31(1305)5.	忠烈王	藏經				
廣嚫寺(31)	咸鏡道 海陽		禑 3(1377)이전		大藏一藏				
國淸寺(32)	京畿道 開城	宣宗 6(1089)	宣宗4(1087)4.	宣宗	[初]藏	大藏	堂		
歸法寺(33)	京畿道 開城	光宗14 (963)	順宗元～肅宗 2		章疏類				
金山寺(34)	全羅道 金堤	後百濟時	忠烈26(1300)12	元 成宗	藏經				
妙蓮寺(35)	京畿道 開城		忠烈22(1296)		章疏類				
妙蓮社(36)	濟州島		忠肅14(1327)3.	元 泰定皇后	佛書一藏				刊行
文殊寺(37)	江原道 春川		明宗15(1185)		大藏				
普門寺(38)	下柯山		忠穆 4-恭愍 10	尹公	[元]藏				
報法寺(39)	京畿道 開豊	麗太祖時	恭愍16(1367)		[元]藏				
普濟寺(40)	京畿道 開城	恭愍21(1372)				海藏	之堂	禑 3(1377)	
三和寺(41)	江原道 三陟				藏經				
釋王寺(42)	咸鏡道 安邊	麗末	禑 3(1377)	李成桂등	大藏經				
松廣寺(43)	全羅道 昇州		忠烈 4(1278)	圓鑑國師	丹本藏經				
勝蓮寺(44)	全羅道 南原		恭愍10(1361)	拙菴	[再]藏				
神光寺(45)	黃海道 海州	忠惠復3(1342)				海藏	殿		
神勒寺(46)	京畿道 驪州		禑 8(1382)1.	李穡	[再]藏		2	禑 9(1383)	大藏閣
安國寺(47)			文宗 7(1053)	圓融國師	[初]藏				
龍門寺(48)	京畿道 砥平	羅神德2(914)	禑 4(1378)	大官具氏女	[再]藏	3		禑 4(1378)	大藏殿
龍巖寺(49)	慶尙道 晋州				[再]藏				
龍藏寺(50)	京畿道 江華			大官具氏	大藏經				
雲海寺(51)					金文				大藏經落成會
日月寺(52)	京畿道 開城	麗太祖5(922)	肅宗 6(1101)4.	肅宗	金字蓮華經				
慈雲寺(53)	京畿道 開城	麗太祖2(919)	忠烈26(1300)12	忠烈王	藏經				
長安寺(54)	江原道 淮陽	羅法興王	定宗元 (946)	定宗	金字寫經				이외에도 3部의 藏經이 있었음
			忠穆 7(1347)	元順帝妃	銀字藏經	藏經	閣		
傳燈寺(55)	京畿道 江華	羅代	忠烈 8(1282)	貞和宮主	[元]藏				
淨土寺(56)	全羅道 長城		忠惠復 2(1341)붕	洪綏	[元]藏				
定惠寺(57)			睿宗時	慧照國師	遼藏				
帝釋院(58)	京畿道 開城		麗太祖11(928)8	洪慶	[唐]藏				
直指寺(59)	慶尙道 金山	羅敬順4(930)	羅敬順王 4	天默大師	[羅]藏				
					金字大藏經	5	2	光宗 25(974)	大藏堂
眞觀寺(60)	京畿道 開城		麗文宗5(1051)1	文宗	寫經				

收藏處	所在地	創建年	安置年月	安置者	收藏本	大藏堂 間數	大藏堂 層數	大藏堂 創建年	備考
天神寺(61)			仁宗 9(1131)	南原郡夫人	大藏經	別	殿		
通度寺(62)	慶尙道 梁山		善德15 (646)	慈藏律師	印度三藏	石	函		
海安寺(63)	京畿道 開城		忠肅王後期	王煦	金銀字寫經				
海印寺(64)	慶尙道 陜川	羅哀莊3(802)	睿宗時	慧照國師	遼藏				
玄化寺(65)	京畿道 開城	麗顯宗 2(1011)	顯宗11(1020)		[宋]金字藏				
			顯宗 11~13		佛經				
旻天寺(66)	京畿道 陰竹		忠宣 4(1312) 8		金字藏經				
洪圓寺(67)	京畿道 開城	麗文宗 2(1048)				大藏	堂	肅宗 6(1101)	
檜巖寺(68)	京畿道 楊州					3			大藏殿
興聖寺(69)	京畿道 漢陽				大藏經				
興王寺(70)	京畿道 開城	麗文宗 10(1056)	文宗31(1077) 3	文宗	金字寫經				
			宣宗 3(1086)	義天	[疏鈔]				
			宣宗 4(1087) 3	宣宗	[初]藏	大藏	殿		
			肅宗 4(1099)	遼天祚帝	經籍				
			毅宗10(1156) 4	毅宗	金銀字寫經				
			忠烈27(1301) 1	元 成帝	藏經				
			忠烈31(1305) 5	忠烈王	藏經				

이상과 같이 기록에 나타나는 바 대량의 佛經을 수장했던 寺刹 중에서 44개소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도 毅宗 14년(1160) 9월 王은 新成된 藏堂에 行幸하여 그 후원에서 국화를 감상했다(71)고 하는데 이 藏堂은 어느 사찰의 藏堂인지 또는 宮內인지도 알 수 없으며 또한 顯宗時 初雕大藏經板을 수장했던 符仁寺(72)에도 初藏을 비치했을 수도 있다. 麗末 權臣 崔瑀가 건립했으며 극히 宏麗했던 禪源寺에서도 再雕大藏經의 雕造와 관련이 있었으니 大藏經이 수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아직 그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上記의 44寺刹 중에서 지역별로는 京畿道에 23개소로 가장 많이 수장되었고 다음으로 全羅道와 慶尙道에 각 4개소, 咸鏡道와 江原道에 각 3개소, 黃海道와 濟州島에 각 1개소, 未詳 5개소(普門寺, 安國寺, 雲海寺, 定惠寺, 天神寺)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반이상이 京畿道에 수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大藏堂이 건립되었던 기록이 있는 寺刹은 13개소였으므로 大藏經을 수장하기 위한 독립 건물은 약 30%정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大藏殿의 創建年을 알 수 있는 것은 6개소인데 光宗時, 肅宗時, 睿宗時에 각 1개소이며 禑王때에 3개소에 건립되었다. 44寺刹 중 18寺刹의 소재지가 현 남한에 속하며 그 중 5개소에만 大藏殿이 있었다. 5개소 중에서 通度寺에는 石函이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으나 大藏殿이 허물어진 곳은 神勒寺와 直指寺이고 實

査를 못한 곳은 龍門寺와 檜巖寺이다. 大藏殿의 構造는 대체로 단층과 2층의 건물이었고 3間 또는 5間이었다.

佛經을 안치했던 時期를 보면 新羅 善德女王時와 敬順王時 각 1건, 高麗의 太祖·定宗時 각 1건, 顯宗時 2건, 文宗時 4건, 順宗時 1건, 宣宗時 4건, 肅宗·睿宗時 각 2건, 仁宗·毅宗時·明宗時 각 1건, 忠烈王時 8건, 忠宣王時 1건, 忠肅王時 2건, 忠惠王時 1건, 忠穆王時 2건, 忠定王時 1건, 恭愍王時 2건, 禑王時 4건이며 미상이 10건이다. 따라서 高麗 전기에 20건, 후기에 21건이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치자는 高麗의 王族이 13건, 스님과 신도가 각 9건, 중국의 王族이 5건으로 나타났다.

어떤 寺刹에서는 大藏經을 2部 이상 4部까지도 수장한 곳도 있어서 그 총수는 44가 넘는 것이다. 이 중 중국의 佛經은 唐寫經 1개소, 宋藏 2개소, 元藏 5개소, 丹本 4개소 그리고 章疏를 수장한 곳이 1개소였으며 또한 印度의 貝葉經을 수장한 곳이 1개소였다. 高麗의 初藏을 수장한 곳은 4개소, 再藏은 5개소, 章疏는 3개소, 羅代寫經 1개소, 麗代寫經 9개소이며,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11개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高麗時代에는 日本에서와 같이 佛經이 아닌 儒書 및 諸子百家書(즉 外藏)을 수장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3. 高麗朝 實錄의 疏開相

高麗時代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간행한 대표적인 서적은 기술한 大藏經들이었다. 한편 高麗에서도 史官을 두고 實錄을 편찬했으며 이 實錄의 보관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國初의 修史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顯宗 4년(1013) 9월 吏部尙書 參知政事 崔沆을 監修國史로 삼고, 禮部尙書 金審言을 修國史, 禮部侍郎 周佇, 內史舍人 尹徵, 右侍御史 黃周亮과 右拾遺 崔冲을 修撰官으로 삼아[73] 太祖부터 穆宗까지의 七代事蹟을 편찬한 것이 修史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王은 항상 史官을 대동하였다. 毅宗이 國淸寺에 行幸했다가 다시 敬天寺에 갔을 때, 有司가 行在所는 협소하므로 史官의 물리침을 청했을 때 王의 언동을 기록하는 史官은 잠시라도 물릴 수 없다[74]고 한 것을 보아도 史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神宗 이전까지의 기록에는 實錄編纂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熙宗 이후 王들의 實錄은 편찬된 것으로 보아 顯宗에서 明宗까지의 實錄도 당시에 편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편찬된 實錄을 麗初에는 어디에 보관했으며 몇 部를 만들었는지 분명치 않다. 다만 처음에는 宮內에 수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仁宗 4년(1126) 李資謙이 王權에 도전하여 亂을 일으키고 宮을 불태웠을 때에 直史館이었던 金守雌가 守直하고 있던 중 불이 번지니까 國史를 업고 山呼亭 북쪽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음으로서[75] 燒燼되는 것을 면하게 한 적이 있었고 이 때까지는 副本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대의 實錄은 찬해졌으며 외적의 침입이 있어 그 안전을 위하여 疏開시킨 것이었으니 그 기록은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를 年代順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仁宗 4(1126) 2. 金守雌가 國史를 山呼亭北으로 疏開.

高宗 14(1227) 9.庚辰 明宗實錄 2本을 撰하여 1本은 史館에, 1本은 海印寺에 收藏시킴.[76]

元宗 10(1269) 5.丙午 바다에 沿한 郡縣에 城을 쌓고 곡식을 저장할 것을 명하고 彰善縣 수장의 國史를 珍島에 移置시킴.[77]

元宗 15(1274) 9.戊戌 中書省을 史館으로 하였는데 이는 遷都 이래 史館을 영조하지 못한 까닭으로 實錄은 本闕 佛堂庫에 假藏토록 함.[78]

忠烈 12(1286) 11.丁丑 直史館 吳良遇 등에게 명해 元으로 進하기 위한 國史를 撰케 함.[79]

忠烈 16(1290) 11.甲辰 哈丹의 침입으로 國史 및 寶文閣과 秘書寺의 文籍을 江華로 移置.[80]

忠烈 18(1292) 1.丁巳 實錄을 禪源寺에 移置케 함.[81]

忠烈 33(1307) 11.丙戌 直史館 尹頎에게 명해 先代實錄 185冊을 元에 進함. 當時人들은 모두 祖宗實錄을 타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반대.[82]

忠宣 4(1312) 5.壬寅 大護軍으로 致仕한 鄭晟을 파견하여 歷代實錄을 送置하게 함.[83]

忠穆 3(1347) 柳淑이 忠烈, 忠宣, 忠肅王 實錄을 海印寺史庫에 수장시킴.[84]

恭愍 11(1362) 1.庚午 前年 紅巾賊에게 함락된 開城을 수복하고 參政 李仁復을 보내 國史, 秘書를 수습하게 함.[85]

恭愍 11(1362) 8.丙申 留都監察司가 上疏하기를 京都는 兵火를 겪어서 백성이 이산되었으며……史庫에 수장된 實錄史藁는 겨우 3櫃 10餘笥가 남았는데 史官을 보내 還置하는 것이 좋겠다고 啓.[86] 이 때 紅巾賊의 亂을 피해 王은 淸州에 南遷해 있었음.

恭愍 11(1362) 10.乙亥 留都 宰樞가 啓하여 紅巾賊이 침입한 후 史庫는 破敗되고 實錄은 露地에 散在하였으므로 마땅히 史官을 파견하여 수습하여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자 王은 이를 따랐음. 따라서 郭樞를 開城 史館에 보내 海印寺로 移置토록 하였음.[87]

禑王 5(1379) 9. 倭寇의 출몰로 인해서 海印寺 수장의 實錄 및 經史 諸書를 善州 得益寺로 移置.[88]

禑王 7(1381) 7. 慶尙道按察使가 보고하기를 倭寇가 寧海 앞 東海上에 있는 丑山島에 침입하였으며 安東 등지를 휩쓸려고 하니 甫州 普門寺 收藏의 史籍을 內地에 移置해야겠음을 啓함. 이에 史官을 파견하여 忠州 開天寺로 移置.[89]

禑王 9(1383) 6. 羅世가 忠州 開天寺에 수장된 史籍을 竹州(安城) 七長寺로 移置.[90]

禑王 9(1383) 9. 修撰 裵仲員이 七長寺의 實錄을 曝曬함.[91]

恭讓 2(1390) 12.癸亥 여름에 倭賊이 침입했기 때문에 竹州 七長寺 國史를 忠州로 移置.[92]

定宗 2(1400) 12.壬子 開城 壽昌宮內 史庫에 火災가 발생하여 入直史官인 盧異가 開庫하여 史籍을 中樞院에 移置.[93]

太宗 2(1402) 6.癸亥 中樞院은 厨房과 가까와 火災의 염려가 있어 史籍을 尙衣院으로 移置.[94]

太宗 4(1404) 4.丁丑 河崙, 權近으로 하여금 尹瓘이 東女眞을 격파하고 碑를 境上에 세운 사실을 忠州史庫의 實錄에서 考出케 함.[95]

太宗 4(1404) 6.初吉 故事를 준수하여 忠州史庫의 實錄을 曝曬[96].

太宗 4(1404) 12.丙戌 河崙, 權近에게 명해 高麗實錄에서 高麗朝의 官制를 考出하도록 忠州史庫에 파견.[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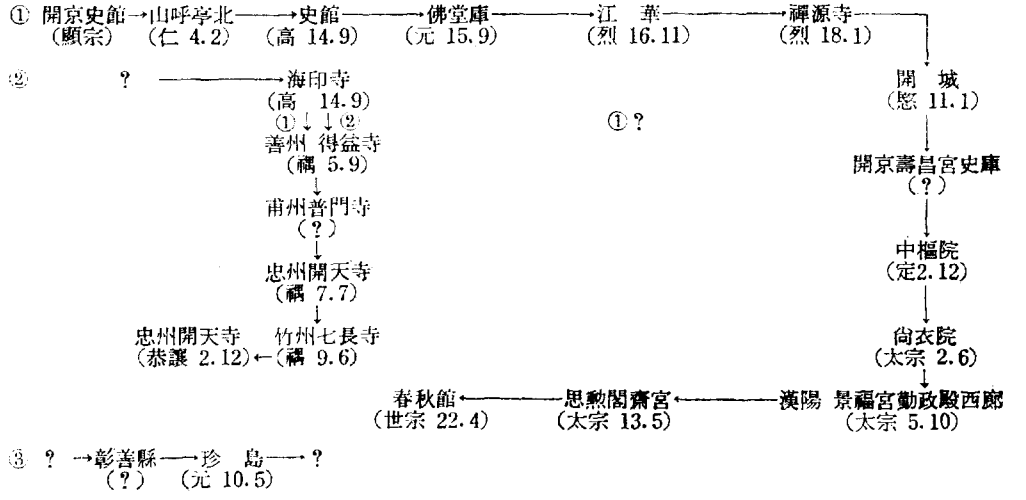
太宗 5(1405) 10.甲子 國史를 景福宮 勤政殿 西廊에 移藏, 漢陽으로 또 다시 移都.[98]

太宗 12(1412) 4.丁巳 禮曹에서 宋의 樂圖를 考閱하기 위해 忠州史庫의 聖宋頒樂圖를 搜出費來.[99]

太宗 12(1412) 8.己未　史官 金尙直으로 하여금 忠州史庫 書册 32種을 進上하게 함.(100)
太宗 13(1413) 5.己亥　景福宮內 思勳閣(즉 長生殿)에 있던 史庫를 思勳閣 齋宮으로 移奉.(101)
太宗 16(1416) 7.庚戌　同副代言 李明德이 舊例에 따라 宮內의 史庫收藏 書册을 曝曬.(102)
世宗 3(1421) 1.庚午　王이 忠州史庫書籍簿를 閱覽하고 필요한 책을 奉敎 鄭周生을 파견하여 取來해 오게 함.(103)
世宗 22(1440) 4.丙戌　春秋館을 禁內에 新建하여 移置.(104) 또한 이 무렵 高麗史를 찬수하기 위해 忠州 開天寺 收藏 實錄을 京中으로 수송해 옴.(105)

이는 高麗朝의 實錄에 관한 移動狀況을 나타낸 것이다. 世宗 13년(1431) 4월 25일 朝鮮朝에 들어와서 최초로 太祖·定宗·太宗 3朝의 實錄을 1部 寫成하여 檢閱 金文起에게 忠州史庫에 奉安하게 하였고(106) 世宗 22년 4월에는 忠州 史庫에 수장되어 있던 高麗朝實錄을 京中으로 수송해 왔다. 高麗朝의 實錄을 수장시켰던 연유로 말미암아 이후에도 忠州 開天寺 史庫에 朝鮮朝 實錄을 수장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京中으로 수송해 왔던 高麗朝의 實錄은 高麗史를 편찬한 뒤에 행방이 불명했기 때문이다. 年代順으로 나타난 高麗 實錄의 疏開狀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實錄의 疏開相



이 表를 보면 몇가지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1) 金守雌가 李資謙의 叛亂으로 實錄을 山呼亭 北쪽으로 땅을 파고 묻었는데 다시 史館으로 언제 移置하였는가? (2) 元宗 15년 佛堂庫에 實錄을 假藏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3) 開京의 正本 實錄을 恭愍王 11년 10월에 海印寺에 移藏하였는데 이후 海印寺에 처음부터 수장되었던 副本 實錄과 함께 善州 得益寺 등으로 疏開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開京으로 還藏되었는가? 또한 그랬다고 한다면 還藏時期는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 (4) 太祖부터 毅宗까지 18代의 實錄에는 副本이 없었는가? (5) 善州 得益寺에서 甫州 普門寺로 옮긴 때는 언제인가? (6) 彰善縣에서 珍島로 옮긴 實錄은 어느 系統이며 이후 어디로

移藏되었는가? (7) 忠烈王 33년 11월 元으로 수송했다가 忠宣王 4년 5월에 송환해 왔던 實錄은 吳良遇 등이 이 때 찬수를 완성하여 수송했는지 아니면 正本이나 副本을 보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송환해 온 후에 어디에 수장시켰는 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들이다.

이 문제들을 다시 고찰하면 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1)의 山呼亭 北쪽으로 疏開시켰던 實錄은 늦어도 新闕이 영건된 仁宗 16년(1138)에는 史館으로 還藏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還藏하기 전까지는 어디다 수장했었느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기간은 妙淸의 西京遷都運動이 있었던 시기이며 仁宗 7년(1129)에 壽昌宮 옆에 있던 侍中 邵台輔의 집을 書籍所로 삼아 書籍을 비치하고 大司成 金富轍과 禮部員外郞 林完 등 여러 儒臣에게 輪番入直케 하고 때로는 經史를 講讀케 할 정도였던 것이다. (2)의 佛堂庫에 實錄을 假藏했던 것은 江華遷都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다. 高宗 19년(1232) 6월 蒙古에 항쟁하기 위하여 江華로 천도하였다가 元宗 11년(1270) 5월에 開京으로 환도하였던 것이다. 환도시에 막중한 實錄을 江都로 移藏하였을 것이며 환도에 즉시 史庫가 건립되지 못하여 佛堂庫에 假藏했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史庫를 건립하여 移藏하였는지도 역시 미상이다. (5)의 善州(善山) 得益寺에서 甫州(醴泉) 普門寺로 옮긴 때는 대개 禑王 6년(1380) 8월 이전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이 때에 倭寇가 창궐하여 尙州와 善州를 불태웠는데[107] 倭寇가 善州로 밀려오기 이전에 甫州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6)의 문제는 다만 (2)와 관련하여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正本 實錄은 江華遷都時에 江華로 移藏했을 개연성이 크며 海印寺의 副本 實錄은 蒙古軍이 물밀듯이 남하해오니 海印寺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彰善縣으로 珍島로 옮겼다가 정국이 안정된 이후 海印寺로 다시 移置하였고 이어 倭寇의 출몰로 인해 內地의 안전지대로 疏開하지 않았을까고 추상할 뿐이다. 그러나 아직 (3)(4)(7)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후일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實錄을 疏開했던 寺刹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開天寺：忠淸道 忠州郡 淨土山에 있던 寺刹이다. 朝鮮朝의 實錄을 收藏했던 史庫도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得益寺：慶尙道 善州郡 伏牛山에 있던 寺刹이다.

普門寺：慶尙道 醴泉에 있던 寺刹이다. 新羅 文武王 7년(667) 義湘이 창건하고 高麗 明宗 14년(1184) 普照師가 重創하였고 朝鮮 太宗 7년(1407) 敎宗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大藏經의 收藏與否는 미상이다.

禪源寺：京畿道 江華에 있었던 寺刹이며 高麗 高宗時 權臣 崔瑀가 건립했다. 지금은 농토로 변한 仙杏里 忠烈祠門前一帶가 그 遺址이다. 여기는 高宗時 再雕大藏經을 雕造하는데 깊은 관계가 있었으니 大藏經을 수장했었을 것이며 그 板木도 朝鮮 太祖 7년(1398)에 京中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후에 海印寺로 移藏된 것이다. 또한 忠烈王 18년 1월부터 恭愍王 11년 1월까지 正本 高麗實錄이 收藏되었던 곳이다.

七長寺：京畿道 安城郡 二竹面 七長里 七賢山에 있던 寺刹이다. 忠烈王 34년(1308)에 창건되었다. 禑王 9년 忠州 開天寺에서 史籍을 移藏하였으나 大藏經의 收藏與否는 불분명하다.

海印寺：우리나라 法寶寺刹의 宗刹이며 전기한 바와 같이 高麗朝의 史庫가 있던 寺刹이다

結　　言

上述한 바와 같이 高麗에는 唐·遼·宋·元의 藏經이 속속 전래되었으며 高麗朝廷에서도 거국적인 사업으로 大藏經을 2차, 續藏經을 1차 간행한 바 있다. 또한 寫經院, 金字院, 銀字院과 기타 寺刹에서 筆寫한 寫經과 각 사찰에서 소규모로 간행한 佛經들이 많이 있었다. 이외에 高麗朝에서도 實錄의 副本을 만들어 寺刹에 收藏하였으며 國亂이 있을 때도 寺刹에 疏開하였다. 이런 여러가지 事情이 高麗에 寺刹文庫가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寺刹文庫는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기록상 대량의 佛經을 收藏했던 寺刹은 44개소였으며 그 대종은 역시 大藏經을 수장하는 것이었다. 이 大藏經을 수장하기 위하여 大藏殿을 건립했던 寺刹은 13개소로 나타났다. 高宗 이후는 實錄의 副本을 海印寺에 수장하였는데 이후 國亂으로 6個寺刹로 疏開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高麗寺刹은 佛經의 保管所로서 또는 實錄의 疏開處로서의 의의만 있었고 日本의 寺刹과 같이 儒教書籍이나 諸子百家書를 수장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朝鮮朝의 寺刹文庫는 高麗의 寺刹文庫를 계승하고 朝鮮時代에 간행된 서적을 수장하였을 것이므로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考究는 또 하나의 과제이므로 후고로 미룬다.

〈後　　註〉

(1) 古書의 경우 어떻게 編綴하느냐에 따라 册數가 달라질 수 있다. 再藏의 경우 6805卷인데 1160册으로 묶여지기도 하였고 1339册으로 묶여지기도 하였다.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서울大學校 圖書館, 1965. p.529와 古書目錄. 서울, 東國大學校圖書館, 1981. p.71〕

(2) 一然. 三國遺事. 京城, 古典刊行會, 1932. 卷 3. 張 30b.

(3) loc. cit.

(4) loc. cit.

(5) ibid. 張31a.
高麗史.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卷 1. 册上. p.20.

(6) 一然. op. cit. 張 31a.

(7) 宋史.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9. 卷 487. p.14039.

(8) 高麗史. op. cit. 卷 3. 册上. p.77; 卷 93. 册下. pp.89-90.
宋史. op. cit. 卷 487. p.14040.

(9) ibid. 卷 487. p.14044.
傳燈本末寺誌.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8. p.307.

(10) 高麗史. op. cit. 卷 4. 册上. p.104.

(11) ibid. 卷 8. 册上. p.171.

(12) 遼史.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9. 卷 23. p.274와 卷 115 高麗傳. p.1522.
文宗 26年 丹本 傳來에 관한 記錄이 遼史 高麗傳이나 高麗史에 나타나지 않아서 淸寧 8年(1062) 12月을 咸雍 8年(1072) 12月로 잘못 옮겨 쓴 過誤로 보아 文宗 17年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한다〔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硏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64〕. 그러나 遼史의 校注本에는 上記 두군데 出處에서 分明히 咸雍 8年으로 밝히고 있다. 大藏經 傳來에 관한 記錄이 兩側 共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許多한데 유독 이 때만 傳來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無理일 것 같다.

(13) 高麗史. op. cit. 卷 9. 册上. p.198.

(14) ibid. 卷 10. 册上. p.206.

(15) ibid. 卷 11. 册上 p.228.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大正 8. 册上. p.311.

(16) 高麗史. op. cit. 卷 12. 册上. p.252.

(17) ibid. 卷 31. 册上. p.641.

(18) ibid. 卷 32. 册上. p.663.

(19) ibid. 卷 37. 册上. p.748.

(20) ibid. 卷 30. 册上. p.622.

(21) ibid. 卷 3. 册上. p.77과 卷 93. 册下. pp.89-90. 韓彦恭.

(22) ibid. 卷 11. 册上. p.224.

(23) ibid. 卷 31. 册上. p.636.

(24) ibid. 卷 34. 册上. p.691.

(25) ibid. 卷 34. 册上. p.696.

(26) 釋迦世尊이 涅槃後 가섭아난(迦葉阿難)이 結集해서 經藏, 律藏이 構成되고 後世에 論藏이 加해지니 三藏이 되었다. 海藏이라고 하는 것은 佛은 天地間에 至大한 敎理이며, 海는 天地間에서 가

장 큰 物體이다. 그 큰 것으로 보면 佛은 곧 바다이고 바다는 역시 佛인 것이며 佛法은 바다와 같이 茫茫히 끝이 없고 滔滔히 마르지 않는다. 따라서 大藏은 海藏이라고도 하는 것이다.〔乾鳳寺本末事蹟.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p.100-1과 朴奉石. 高麗藏高宗板の傳來攷. 朝鮮之圖書館. 第 4卷 3號(昭和 9.11) p.8〕

(27) 開國寺에는 定宗元年에 王이 儀仗을 갖추어 佛舍利를 奉安하고 7萬石의 穀物을 納入시켜 經寶와 廣學寶를 각각 設置한 바 있으며 麗末에 李齊賢의 努力으로 重修된 바 있다. 宣宗 4年 2月에는 王이 開國寺에서 大藏經의 印成을 慶祝하였으니 一部를 安置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睿宗 16年(1121)에 大藏堂을 지었는데 이 때 崔弘嗣가 사사로이 軍隊를 動員하여 物資를 운반하자 韓冲과 任元濬 등이 이를 탄핵했던 일도 있었다.〔高麗史. 卷 9. 冊上. p.198, 卷 10. 冊上. p.206, 卷 97. 冊下. p.166. 韓冲〕

(28) 千佛山의 開心寺에는 高麗 景宗 6(981) 年 9月에 大雄殿, 寮舍, 金庫, 穀藏 등의 燒失은 있었으나 多幸히 大藏經을 安置해 둔 一殿만 전혀 피해가 없었으며 毅宗 15(1161)年 9月에 또 불이 났으나 佛像, 幀畵와 함께 大藏經은 燒失을 免했었다.〔朝鮮寺刹史料. 影印本. 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冊下. p.401〕

(29) 忠定王 2(1350)年 以後 倭賊이 海上으로 侵入하여 많은 害를 입혔다. 이 이전에 大官具氏가 江華의 龍藏寺에 大藏經을 施納했었는데 이 때에 散佚되어 修補하고 敬天寺로 移置하였다. 그러나 敬天寺도 바다와 가까와 다시 禑王 4年(1378)頃 京畿道 砥平 龍門寺로 옮겼던 것이다.〔李穡, 牧隱集. 高麗名賢集. op. cit. 冊 3. pp.827-8과 梵宇攷. 寫本. [年紀未詳] 張 9〕

(30) 廣明寺는 延慶宮 北쪽 松岳山麓에 있었으며 高麗 太祖의 舊宅을 喜捨받은 寺刹이며 여기에 忠烈王이 직접 行幸하여 藏經을 轉했던 것이다.〔高麗史. op. cit. 卷 32. 冊上. p.663〕

(31) 禑王 3年 李成桂, 姜筮, 洪徵, 柳源, 鄭夢周, 李和 등이 淸州(北靑)에 갔다가 海陽(吉州) 廣積寺의 大藏一部와 佛像, 法器 등이 兵火에 毁盡될 지경에 이르렀음을 듣고 前中郎 全南(連)을 보내 배에 싣고 그 散佚部分을 補하여 安邊 雪峯山 釋王寺에 移置하게 한 바 있는 것이다.〔朝鮮寺刹史料. op. cit. 冊下. pp.352-3.과 梵宇攷. op. cit. 張 77. 釋王寺〕

(32) 圓覺國師가 童子僧으로 國淸寺에 있었는데 仁宗 10年(1132) 王이 佛殿에 共參하고 우연히 大藏堂에 들어가 開函하고 책을 꺼내어 師에게 주니 師는 어린데도 能通하였고 王이 감탄하여 이 스님은 나중에 大法師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冊上. p.399〕 이 記錄으로 보아 國淸寺에 大藏堂까지 建立되었음으로 大藏經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 宣宗 4年 王이 歸法寺에 나아가 大藏經의 印成을 慶祝한 바 있다.〔高麗史. op. cit. 卷 10. 冊上. p.206〕 이로 보아 歸法寺는 大藏經의 收藏과 깊은 關聯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同時에 大藏經의 印成을 慶祝했던 開國寺, 興王寺에는 大藏殿이 建立되었던 것으로 보아 같은 경우일 것으로 推測할 수 있고 이 大藏經은 初雕大藏經일 것이다.

(34) 金山寺의 慧德王師塔碑에 의하면 文宗年間 師는 金山寺에서 60餘步되는 곳에 廣敎院을 創建하였고 여기에서 順宗 元年(1083)부터 肅宗 2年(1097)까지 慈恩이 撰한 法華玄贊, 唯識述記 등 章疏 32部 353卷을 考正하여 開板한 바 있다.〔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pp.296-9와 朝鮮寺刹史料. op. cit. 冊下. 全北. pp. 13-4〕 따라서 金山寺에는 章疏類 등이 많이 收藏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 忠烈王 26年 元帝는 香 50斤, 匹段 30匹, 絹 300匹, 鈔 864錠을 伯顔과 忽篤不花에게 주어 派遣하여 藏經을 轉하게 하였고 忠烈王은 이들과 함께 妙蓮寺에 行幸하여 轉하였다〔高麗史. op. cit. 冊上. p.650〕.

(36) 지금 松廣寺에 傳해오고 있는 濟州妙蓮社에서 覆刻했던 金光明經文句 卷下에는 元貞二年丙申歲高麗國濟州妙蓮社奉宣重修幹善瀑布寺住持禪師安立이란 刊記가 있다.〔曹溪山松廣寺史庫.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p.775-7〕 이 책은 忠烈王의 命을 받고 安立이 忠烈王 22年(1296) 續藏經의 普及을 위해 刊行했던 것이다. 이로서 交通이 不便했던 當時에도 續藏經이 얼마나 廣範圍하게 傳播되었나를 알 수 있다.

(37) 忠肅王 14年 元의 泰定皇帝의 皇后가 僉議政丞 恰, 忽篤帖木兒, 僧 性澄, 시인(寺人) 允堅 등을 보내어 佛書一藏을 轉하니 王은 淸平山 文殊寺에 安置했던 것이다. 이때 보내온 책이 千函으로 表現되고 있음을 보아 巨帙임을 알 수 있다〔李齊賢. 益齋亂藁. 高麗名賢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册 2. p.290과 檜岩寺本末寺誌.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7. pp.686-9〕.

(38)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册上. p.950.

(39) 報法寺는 高麗 太祖妃 柳氏가 집을 喜捨함으로써 建立된 寺刹이었다. 한때 廢寺되었으나 侍中인 漆原府院君 尹公, 禪源和尙과 法蘊和尙이 共同으로 協力하여 重營하니 忠惠王復位 4年(1343)에 完成되었다. 이에 大藏經을 備置해두기 위하여 江浙에까지 사람을 보내 忠穆王 4年(1348)에 收藏하였다. 그러나 이 大藏經은 恭愍王 10年(1361) 紅巾賊에 의해 유린되었고 尹公은 이를 修補하게 한 바 있다. 또 恭愍王 16年(1367)에 江浙에서 大藏經을 가져와서 收藏하였다〔徐居正. 東文選. op. cit. 卷 75. 册中. pp.427-8〕.

(40) 普濟寺의 原名은 廣通普濟禪寺였으나 朝鮮初에는 演福寺로 改稱되었다. 恭愍王 21年(1372) 魯國公主의 冥福을 빌기 위해 廣通普濟禪寺를 建立하기 시작하여 禑王 3年(1377)에 完成하였고 이때 李穡이 碑銘을 써서 彌勒殿, 觀音殿, 海藏之堂이 모두 갖추어졌으며 100間에 달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普濟寺에 海藏之堂이 있었음을 보아 大藏經이 收藏되었음을 알 수 있다〔徐居正. 東文選. 影印本. 서울, 慶熙出版社, 1967. 卷 119. 册中. pp.423-5〕.

(41) 일찌기 動安居士 李承休가 三陟 頭陀山 龜洞에 容安堂을 짓고 卜居하면서 三和寺의 藏經을 10年동안 빌려보아 完全히 讀破하였다고 하니 三和寺에 大藏經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李承休가 지은 容安堂을 大藏經을 읽은 庵子라고 하여 뒤에 看藏庵으로 불려졌다〔ibid. 卷 68. 册中 p.336〕.

(42) 註 31 參照

(43) 忠烈王 4年 圓鑑國師가 丹本藏經 1,000册을 修輯하여 松廣寺에 保管시킨 바 있다. 이 丹本藏經은 文宗 17年以來 傳來된 遼의 藏經 중의 하나인 것이나 以前 安置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曹溪山松廣寺史庫. op. cit. pp.72-82. 777-8〕.

(44) 萬行山의 金剛寺는 大禪寺 拙菴이 重修한 후 勝蓮寺로 改稱되었다. 恭愍王 13年(1364)에 李穡이 쓴 記錄에 의하면 拙菴의 努力으로 恭愍王 10年에 重修되었으며 모두 111間의 巨刹이었다. 重修된 후 郡人들이 合心, 大藏經을 印成하여 無量壽殿의 左右에 安置하였던 것이다〔徐居正. 東文選. op. cit. 卷 72. 册中. p.388〕.

(45) 忠惠王復位 3年에 創建된 元 順帝의願刹이었다. 北嵩山 神光寺에는 海藏殿이 있어 石佛과 經板이 安置되었으나 佛典은 元 順帝가 元의 大藏經을 보내서 收藏시켰을 수도 있고 高麗刊의 大藏經을 收藏시켰을 수도 있다〔朝鮮寺刹史料. op. cit. 册下. pp.308-9〕.

(46) 禑王 6年(1380) 2月 牧隱의 亡父 李穀의 立願에 의해 牧隱과 懶翁의 門下生들이 發願하여 大藏經을 印出하였다. 즉 覺昆은 順興, 覺洪은 寧海, 道惠는 淸州, 海珠는 忠州, 覺雲은 平壤, 梵雄은 鳳州, 志寶는 牙州에서 各各 募緣하고 釋幻은 墨을 만들어서 이듬해 4月 大藏經을 印出하고 9月에 粧褙하고 11月에 性空이 函을 만들었다. 이 大藏經을 同 8年(1382) 正月 靈通寺에 轉하여 閱讀하고 4月에 神勒寺로 옮겨 왔던 것이다. 大藏閣은 花山君 權僖와 菴順公이 監董하여 2層을 지어 同 9年(1383)에 大藏經을 安置하였던 것이다〔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册上. pp.507-511〕. 지금은 舊大藏閣址에 1981年에 建立된 大藏閣基碑閣이 있을 뿐이다.

(47) 浮石寺에 있는 圓融國師碑에 의하면 國師는 文宗 7年 大藏經 1部를 印寫하여 安國寺에 芸藏시켰다고 記錄하고 있다. 〔ibid. 册上. pp.270-1〕. 이 때는 初雕大藏經의 國前本은 刊行되었고 國後

本은 刊行되지 않은 時期이므로 安國寺에 收藏되었던 大藏經은 初藏의 國前本과 나머지는 寫本으로 收藏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硏究. 서울, 景仁文化社, 1980. pp. 65. 68〕.

(48) 註 29)와 50)參照. 大官 具氏의 딸인 吳子淳의 부인이 敬天寺도 바다와 가까와 倭賊의 侵入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深山幽谷에 藏置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龍門寺로 옮겼다. 이 千函萬軸의 藏經을 安置하기 위하여 3間의 大藏殿을 지었는데 北原郡夫人 元氏 등이 施財하였다〔李穡. 牧隱集. op. cit. pp. 827-8〕.

(49) 忠肅王이 天台宗師 國統 無畏를 위하여 龍巖寺를 重創하고자 그의 在位 2年(1315)부터 同 5年(1318)까지 重修하였다. 同時에 殘闕한 大藏經을 補塡하기 위하여 監董官인 鹽場別監 李白經과 方于楨 등에 命해 雪牋紙 3萬餘張과 漆函 140개를 만들게 하여 無畏師의 門人인 大禪師 承淑과 中德 등을 江華島 板堂에 보내어 그 闕函, 闕卷, 闕張을 印出해서 新舊本을 합치니 600餘函이 되었다. 이 大藏經을 黃紙로 裝訂을 하고 黃絹으로 幅을 대어 新殿의 새 倉庫에 安置하였다고 朴全之가 記錄한 바 있다〔徐居正. 東文選. op. cit. 卷 68. 册中. pp. 333-5〕. 이 記錄으로 보아 忠肅王 以前부터 龍岩寺에 大藏經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忠肅王때에 補修했던 점으로 보아 收藏되었던 大藏經은 再雕大藏經이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50) 註 29)와 48)參照

(51) 慶北 軍威郡의 麟角寺에 있는 普覺國尊인 一然의 碑銘에 의하면 一然은 元宗 9年(1268) 여름 朝旨를 받아 禪敎名德 100名을 모아 雲海寺에서 大藏經落成會를 開催한 바 있으며, 여기서 낮에는 金文을 읽고 밤에는 諸家의 宗趣를 읽은 바 疑問나는 바를 一然에게 물으니 師는 모두 靑山流水처럼 對答하여 神仙의 境地에 들어간 것 같았다고 閔漬는 記錄하고 있다〔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p. 470〕.

(52) 肅宗은 金泥의 妙法蓮華經이 完成됨을 慶賀하여 后妃와 太子를 帶同하고 日月寺로 行幸한 바 있다〔高麗史. op. cit. 卷 11. 册上. p. 233〕.

(53) 勞運橋 옆에 永平門 밖에 있었는데 忠烈王은 慈雲寺에 나아가 藏經을 轉했다〔ibid. 卷 31. 册上. p. 650〕.

(54) 麗 定宗元 年(946)에 王은 正租 2,000石을 下賜하여 金泥의 法華經, 金剛經을 書寫하게 하고 頒下하니 長安寺에서는 毗盧殿에 安置하였었다〔楡岾寺本末寺誌. op. cit. pp. 297-8〕. 以後 成宗年間에 이르러 重創되었으며 忠穆王 7年(1347)에 元의 順帝妃인 奇皇后가 內帑의 楮幣 1,000을 내어 重興시키도록 하였는데 그 規模가 120間이나 되어 佛殿, 經藏閣, 鍾樓 등이 다 갖추어졌었다. 당시 長安寺에는 藏經 4部가 收藏되어 있었는데 그중 銀字藏經은 奇皇后가 賜한 것이었고 이외에도 金字寫經인 華嚴 3本과 法華 8卷이 있었다〔李穀. 稼亭集. 高麗名賢集.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册 3. pp. 44-5〕. 이 藏經들은 朝鮮 成宗 16年(1485)까지도 收藏되어 있었으므로 南孝溫의 游金剛山記에도 나타나고 있다〔金詮. 續東文選. 서울, 慶熙出版社, 1970. 卷 21. pp. 410-422〕.

(55) 阿度和尙이 創建했을 때는 眞宗寺였는데 忠烈王의 舊妃인 貞和宮主 王氏가 玉燈을 施捨한 후 傳燈寺로 改稱된 것이다. 아울러 貞和宮主는 忠烈王 8年 印奇스님을 宋에 보내어 大藏經을 印出해 오라고 命해 傳燈寺에 收藏시켰던 것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京城, 朝鮮史學會, 1930. 卷 12. p. 26〕.

(56) 白羊寺라고도 불린다. 覺儼王師는 門人들에게 白巖山에 新佛宇를 尊重하도록 부탁하니 相國인 洪綏가 發願하여 捨財하였으며 이에 覺儼門人으로 하여 入宋하여 大藏經을 印出해오도록 하였다. 이에 忠惠王復位 2年(1341) 봄에 藏經이 轉하니 法會를 열고 落成하였던 것이다〔曹溪山松廣寺史庫. op. cit. p. 485와 朝鮮寺刹史料. op. cit. 册上. p. 168〕.

(57) 麗 睿宗(1106-1122)時 慧照國師가 王命을 받들어 遼本大藏經 3部를 가져왔는데 1部는 海印寺에, 1部는 定惠寺에, 나머지 1部는 許參政宅에 收藏되어 있었다고 一然(1206~1289)은 記錄하고 있

다〔一然. 三國遺事. 京城, 古典刊行會, 昭和 7. 卷 3. 張 27-32〕.

(58) 新羅의 스님이었던 洪慶이 唐의 福建省에서 大藏經을 求해 배에 싣고 오자 麗 太祖는 親히 禮成江에 나아가서 맞이하고 藏經을 帝釋院에 安置한 바 있다〔高麗史節要.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卷 1. p. 20〕. 高麗에는 宮城 밖에 內帝釋院이 있었고 松岳山 東麓에 外帝釋院이 있었는데 어느 帝釋院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59) 敬順王 4年 天默大師가 大藏經을 願寫하니 王이 嘉歎하여 收藏시킬 寺刹의 부지를 擇하도록 하였다. 이에 金泉 黃嶽山에 直指寺를 짓고 筆寫한 大藏經을 安置하였다〔直指寺誌.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0. p. 159〕. 이 新羅의 大藏經은 高麗에 傳來되었을 것이며 또한 光宗 25年(974)에는 坦文國師와 克寬禪師가 大藏堂을 新建하고 金字大藏經 593函을 收藏시키기도 하였다. 이 大藏堂은 2層으로 된 5間의 建物이었다〔ibid. pp. 125, 206, 286〕. 明宗 15年(1185) 學士 林民庇가 撰한 直指寺大藏殿碑에 의하면 5048卷이 收藏되었던 것이다〔ibid. pp. 279-281과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册上. pp. 567-8〕.

(60) 文宗은 龍首山에 있던 眞觀寺에 行幸하여 新成 華嚴經과 般若經을 轉한 바 있다〔高麗史. op. cit. 卷 7. 册上. p. 149〕.

(61) 毅宗 10年(1156)에 建立된 南原郡夫人梁氏墓誌에 의하면 仁宗 9年 夫人과 公이 發願하여 天神寺에 別殿을 建立하고 大藏經 5,000餘卷을 安置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p. 141〕.

(62) 善德女王 12年(643) 慈藏法師가 三藏 400餘函을 싣고와서 靈鷲山 通度寺에 安置하였고 同 15年 金剛戒壇을 築成하였고 그 가운데에 世尊頂骨, 金利 100枚, 毘羅點袈裟 1領을 넣은 石函을 安置하였는데 그 內外函 속에 貝葉經을 安置하고 盖石으로 덮었던 것이다. 이 貝葉經은 印度의 菩提樹葉으로 만들었으며 中國을 通해서 慈藏律師가 가지고 온 것들이었다〔一然. 三國遺事. op. cit. 卷 3. 張 27-32와 通度寺誌.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9. pp. 134-5〕. 그러나 이 貝葉經은 石函속에 安置된 상태로 지금까지 傳來되었으므로 한번도 閱覽될 수 없었다.

(63) 忠肅王 12年(1325) 5月 鷄林府院君 王煦는 忠宣王이 元에서 薨하자 斬衰(斬衰)를 입고 廬絰을 하고 奉喪, 本國으로 돌아와서 葬事지낸 뒤 每月 朔望으로 私祭하기를 죽을 때까지 繼續하였고 또한 忠宣王의 陵옆의 海安寺를 修補하여 忠宣王의 冥福을 빌었던 것이다. 일찌기 忠宣王이 金泥와 銀泥로 600般若經을 썼으나 完成하지못하고 薨했으므로 私錢으로 이를 完成하였던 것이다〔徐居正. 東文選. op. cit. 卷 125. p. 513〕.

(64) 註 55) 參照. 高麗時代에 大藏經의 收藏與否는 確認되지 않았으나 海印寺는 高麗朝의 史庫가 있던 巨刹이었으므로 高麗朝의 大藏經이 收藏될 蓋然性이 있는 것이다.

(65) 玄化寺의 規模는 宏大하여 東西가 약 80間이었고 南北이 약 60間이었다. 顯宗 11年에는 紙墨價를 가지고 宋에 가서 大藏經을 求해 金文一藏을 받아와 收藏시켰으며〔傳燈本末寺誌. op. cit. pp. 301-4〕 또한 同 11~13年 사이에 工人에게 大般若經 600卷, 三本華嚴經, 金光明經, 妙法蓮華經 등을 顯宗이 父母의 冥福을 빌기 위해 雕造하게 하고 그 板刻을 玄化寺에 收藏하게 하였으며 般若經寶를 두고 시방(十方)에 永遠히 印施하도록 하였다〔ibid. p. 307〕. 이어 肅宗 7年(1102) 5月에도 王이 玄化寺에 行幸하여 銀書瑜伽顯揚論을 慶讚한 바 있다〔高麗史. op. cit. 卷 11. 册上. p. 236〕.

(66) 忠宣王 4年에 陰竹縣(現 利川郡) 묏天寺에서 金字藏經을 써서 母后를 追福한 바 있다〔ibid. 卷 34. 册上. p. 691〕.

(67) 肅宗 6年 2月에 大藏堂과 九祖堂이 落成되어 王이 行幸하여 慶祝한 바 있다〔ibid. 卷 11. 册上. p. 232〕.

(68) 懶翁(普濟和尙)이 建立하였는데 모두 262間이었다. 李穡은 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서 그중 大藏殿이 3間 있었다고 記錄함을 보아 麗末에 大藏經이 있었음을 推測할 수 있다〔徐居正. 東文選. op.

cit. 卷 73. 册中. pp. 397-8〕.

(69) 麗末 魯國公主는 功德主가 되어 五冠山 興聖寺에 收藏되어 있던 大藏函藏의 標識를 하여 大藏經을 粲然히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魯國公主가 他界하였다고 李穡은 記錄하고 있음을 보아 恭愍王 13年(1364) 以前부터 收藏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徐居正. 東文選. op. cit. 卷73. 册中. p. 398〕.

(70) 文宗 10年(1056) 刱建하기 시작하여 同 21年(1067)에 都合 2,800間을 落成하였는데 僧侶 1,000名이 常住할 수 있는 高麗 第一의 道場이었다〔高麗史. op. cit. 卷 8. 册上. p. 176〕. 同 31年 3月 王은 興王寺에 行幸하여 新成한 金字 華嚴經을 轉한 바 있다〔高麗史. op. cit. 卷 9. 册上. p. 188〕. 宣宗 4年 3月 王이 興王寺에 行幸하여 大藏殿의 落成을 慶祝한 바 있으며〔ibid. 卷 10. 册上 p. 206〕, 이는 初雕大藏經의 收藏을 위한 大藏殿으로 推定할 수 있겠다. 大覺國師 義天이 宋에서 載來한 疏鈔 3,000餘卷을 宣宗에게 獻納하니 王은 大喜하고 興王寺에 收藏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義天은 續藏經을 刊行하기 전에 그 蒐集된 疏鈔의 目錄으로 新編諸宗教藏總錄을 編하였는데 여기에 4,858卷이 收錄되었으나 禪源諸詮集이나 宋의 了元, 宗本, 高麗의 均如, 曇琳의 著述이 一切 收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實際 蒐集했던 章疏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閔泳珪. 義天新編諸宗教藏總錄. 韓國의 古典百選. (1969. 1. 新東亞附錄) pp. 55-57〕. 어쨌던 續藏經의 底本이 收藏되었었으며 刊本 續藏經도 收藏되었었을 것이다. 肅宗 4年(1099) 遼의 天祐帝가 義天에 관해 듣고 6900卷의 經籍을 보내왔으며〔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op. cit. 册上. pp. 294, 311〕 또한 毅宗은 元子誕生을 慶賀하여 華嚴經 2部를 金銀書하여 同 10年 4月 興王寺의 弘教院에 轉하였다〔高麗史. op. cit. 卷 18. 册上. p. 366〕. 忠烈王 27年 1月에는 王과 元使가 元帝가 보낸 藏經을 轉하였다〔ibid. 卷 32. 册上. p. 652〕. 同 31年 5月에는 王은 또 藏經을 轉하였다〔ibid. 卷 32. 册上. p. 664〕.

(71) ibid. 卷 18. 册上. p. 371.

(72) 符仁寺의 位置는 대개 大邱로 생각되고 있으나 大邱가 아닌 開城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朝鮮佛教略史. 서울, 寶蓮閣, 1972. p. 105〕.

(73) 高麗史. op. cit. 卷 4. 册上. p. 93.

(74) ibid. 卷 18. 册上. p. 367.

(75) ibid. 卷 98. 册下. p. 190.

(76) ibid. 卷 22. 册上. p. 453.

(77) ibid. 卷 26. 册上. p. 528.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4291. 卷 30. p. 515. 晋州牧

(78) 高麗史. op. cit. 卷 28. 册上. p. 565.

(79) ibid. 卷 30. 册上. p. 615.

(80) ibid. 卷 30. 册上. p. 624.

(81) ibid. 卷 30. 册上. p. 627.

(82) ibid. 卷 32. 册上. p. 667.

(83) ibid. 卷 34. 册上. p. 691.

(84) 李穡. 牧隱集. op. cit. p. 946.

(85) 高麗史. op. cit. 卷 40. 册上 p. 791.

(86) ibid. 卷 40. 册上. p. 796.

(87) ibid. 卷 40. 册上. p. 797. 와 卷 112. 册下. p. 451. 白文寶.

(88) ibid. 卷 134. 册下. p. 889.
新增東國輿地勝覽. op. cit. 卷 29. p. 488. 善山都護府

(89) loc. cit.
高麗史. op. cit. 卷 134. 册下. p. 900.

(90) ibid. 卷 135. 册下. p.908.
新增東國輿地勝覽. op. cit. 卷 8. p.148. 竹山縣
(91) 權近. 陽村集. 木板本. [顯宗 13(1672)] 卷 16. 張 2a-3b.
(92) 高麗史. op. cit. 卷 45. 册上. p.887.
(93) 定宗實錄. 影印本.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88) 卷 6. 2年 12月 壬子. 册 1. p.189上
(94) 太宗實錄. 影印本.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88) 卷 3. 2年 6月 癸亥. 册 1. p.237下左.
(95) ibid. 卷 7. 4年 4月 丁丑. 册 1. p.294下右
(96) 徐居正. 東文選. 木板本. [中宗時] 卷 93. 張 1-2.
(97) 太宗實錄. op. cit. 卷 8. 4年 12月 丙戌. 册 1. p.316下左
(98) ibid. 卷 10. 5年 10月 甲子. 册 1. p.339下右
(99) ibid. 卷 23. 12年 4月 丁巳. 册 1. p.630上左
(100) ibid. 卷 24. 12年 8月 己未. 册 1. p.646上右
(101) ibid. 卷 25. 13年 5月 己亥. 册 1. p.672上右
(102) ibid. 卷 32. 16年 7月 庚戌. 册 2. p.129上左
(103) 世宗實錄. 影印本.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88) 卷 11. 3年 1月 庚午. 册 2. p.420上右
(104) ibid. 卷 89. 22年 4月 丙戌. 册 4. p.280下右
(105) 新增東國輿地勝覽. op. cit. 卷 14. p.237. 忠州牧
(106) 世宗實錄. op. cit. 卷 52. 13年 4月 己未. 册 3. p.313. 上右
(107) 高麗史. op. cit. 卷 134. 册下. p.895.